



4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광주시립미술관, 한국현대미술특별전-All About Korea'전에서 현지 관객들이 광주 지역 미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광주 작가들 첫 유럽 무대 서다

시립미술관 '한국현대미술특별전'... 28일까지 뮌헨

11명, 40점 전시... 초대전·작품 구매 요청 잇따라

5월25일부터 베를린 마이클 슈츠 갤러리서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뉴욕 퀸즈 미술관, 중국 금일 미술관 등에서 전시회를 열어왔다. 올해는 유럽 미술의 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독일 뮌헨에서 판을 벌였다.

지역 작가들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대규모 기획전을 여는 것은 국공립미술관으로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한국현대미술특별전-All About Korea'가 지난 4일 독일 뮌헨 'White Box'에서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독일 등 유럽 미술 전문가와 애호가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운, 김상연, 김진화, 김해성, 서윤경, 신호윤, 이이남, 임남진, 정운학, 최미연, 최재영씨 등 모두 11명의 작가가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참여 작가들은 이번 전시의 산파 역할을 한 마이클 슈츠 갤러리 마이클 슈츠 관장과 미술관 측이 포토폴리오 등을 함께 검토, 선정했다.

시립미술관 황영성 관장과 참여 작가들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전시의 성과를 설명했다.

미술관 측에 따르면 4일 열린 개막 행사에는 헬 모나르제더 뮌헨 시장을 비롯해 메호메트 다이 등 뮌헨시 문화부 관계자와 세계적인

기업 '지멘스' 니콜라스우스 슈타르바티, 볼프스키 갤러리 대표 미샤엘 프린세신 볼론스키,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이레네 그루도바츠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 광주 지역 작가 작품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독일의 대표적 일간지인 슈도도이트 자이퉁은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근원을 보여주는 전시"라며 "광주지역 작가 11명은 광주미술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뮌헨과 교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뮌헨의 경우 유학생 등의 소규모 전시는 있었지만 한국작가들의 대규모 기획전은 거의 없어 관심이 더욱 높았다는 게 미술관측의 설명이다.

참여 작가들에 대한 '리브롤'도 이어졌다. 독일 바덴바덴 슈퍼(Supper) 갤러리는 이이남 작가에게 초대전을 제안했으며 지멘스는 신호윤 작가 등에게 작품 구매를 요청했다. 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큐레이터는 오는 2016년 브라질 월드컵의 기획전을, 뮌헨 문화부도 전시회를 제안했다.

적극적인 제안을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이레네 그루도바츠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교류전 등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그는 시립미술관에 공식

제안서를 요청하는 등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베를린 마이클 슈츠 갤러리에서 계속된다.

독일 전시는 작가들에게도 의미가 많다. 지역 작가들이 유럽 시장에 발을 내딛는 것은 상업화랑과 함께 참여하는 아트페어가 전부다. 광주에서도 필른 아트페어 등에 많은 작가들이 참가해 왔다. 하지만 '개인'으로 움직이다 보니 운송비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소품'과 판매에 유리한 작품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공신력 있는 미술관과 함께 100여 이상의 대형 작품을 내걸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미적이다.

유럽 무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다. 올해는 운송비 6000만 원을 포함,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참여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립미술관 김민경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유럽 시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미술관의 역할과 별개로 제안을 받은 작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작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결과물에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뮌헨 전시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고,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추모사업 활발

여수 순교기념관 7월22일부터 컨퍼런스 등 개최

함안에 생가복원·기념관 추진... 독후감 공모도

신사참배 거절 모진 박해와 고문, 한센병 환자 돌봄, 공산당에 두 아들 잃음, 원수를 양아들로 입양.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시련이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통들이다.

여수에서 목회를 했던 고(故) 손양원(1902~1950·사진) 목사는 사랑을 행위로 보여준 참 신앙인이다.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여수 애양원 교회에 부임했다.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신앙을 지켰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았다. 1948년 여순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아 사랑을 실천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른다. 그가 행한 참사랑이 원자탄의 위력을 뛰어넘고도 남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물질이 우선시되고 내면적 가치보다 외면적 요인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순목사의 삶은 더욱 많은 가르침을 준다.

순 목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 사업

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생가복원운동본부'는 15일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순 목사의 생가 터에 생가를 복원한다. 또 순목사의 일생을 알리는 기념관도 만든다. 건축비 가운데 일부는 전국 교회에 1만원 헌금 운동 등을 벌여 모을 예정이다.

순 목사의 생애와 정신을 알리기 위해 독후감도 공모한다.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는 순목사의 일생을 담은 '아! 뉘양원'의 독후감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A4지 2매 이상, 5매 미만으로 결과는 7월 20일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www.sonyangwon.com)

여수에 위치한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이하 순교기념관)은 올해도 여수 애양원 성산교회에서 '순교'를 주된 테마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예년과 달리 3차까지 진행된다.



오페라로도 손양원 목사는 부활한다. 원로 작곡가 박재훈씨의 작품 창작오페라 '손양원'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2013년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서 공연된다. 순교기념관 김선희 간사는 "손양원 목사는 사랑과 순교라는 뜻을 정해놓고 오직 그 한 길만을 생각하며 달려갔던 분"이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spark@kwangju.co.kr

'맞춤형 기획여행' 신청·접수

시·문화재단, 취약계층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행이 힘든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기획여행'이 진행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이 있는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획여행이용권'신청을 접수한다.

일정은 지난해 실시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힐링'과 '안식'을 테마로 서울, 부산, 제주도, 용인·대전, 경주·대구, 순천·여수 등 6개 코스에 450여 명이 참가한다.

준비과정부터 각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여행이용권 수혜자나 올해 개별·단체 여행이용권 선정자는 제외된다.

결과 발표는 30일 광주문화재단 및 여행이용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1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붓질의 흔적... 작품에 생명력을

강남구 개인전, 18~24일 'DS 갤러리'



'석류'

동·서양을 아우르는 두 가지 시선으로 자연을 캔버스에 담은 강남구 작가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DS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자연-은밀한 서정" 주제의 전시에서 강씨는 대상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고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 주제를 도드라지게 한 화풍을 펼쳐놓는다. 이번이 20번째 여는 개인전이지만, 치밀한 붓질로 사물에 생명을 넣는 저력은 여전하다.

"공간-생명력" 연작에 등장하는 꽃들은 접사(接寫) 렌즈를 거쳐 과잉되어 맺힌 영상처럼 선명하다. 반면, 배

경은 주연인 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밑칠이 물러나 있다. 그는 "현장에서 보았던, 마음이 머무는 풍경"이라고 설명한다.

"풍경"(Landscape) 연작은 자연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시골 어디에나 있을 법한 개울과 같은 그의 포근한 붓질을 거쳐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 땅으로 다가온다.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석류'는 입안 가득 침이 돌게 한다. 문의 062-233-391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7명 예술 꿈나무들 무대에

광주내셔널필하모니, 20일 첫번째 '신성콘서트'

지난해 출범한 광주내셔널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광주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술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신성(新星)콘서트'는 오케스트라 운영이 힘들더라도 꼭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다. 연주자들에게 독주도 중요하지만, 오케스트라와의 협업은 또 다른 자극과 공부의 기회가 된다.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첫 번째 '신성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피아노, 바이올린 등 7명의 협연자가 무대에 선다.

연주자는 이신화(피아노·운림중 2년), 정승훈(피아노·건국대 석사 과정), 오규민(첼로·진남중 2년), 오미수(플루트·일본 오기나와 음악학부 유학 예정), 황영

지(바이올린·전주 예고 1년), 이수민(첼로·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이재민(바이올린)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1번 C장조',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제1번 C장조', 생상의 '하바네즈',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 E단조', 생상의 '바이올린협주곡 E단조' 등이다.

지휘는 도쿄프린시페르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현재 도쿄 스키나미윈드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인 가토 아츠시(사진)씨가 맡는다. 티켓 가격 2만원. www.953-3987. 문의 062-953-398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광산구 산정동
- 면적: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지목: 잡종지
- 입지조건: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령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우러진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원목가공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지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포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월동 상가대지141㎡ 건물135㎡ 풍양지구 일구 35㎡대포변 코너 주차면리 매가246천만 원 (카센터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공장 창고 부지
나주시 송촌동 동산대 인근 2차선 도로 접 자연녹지 전 16,200㎡(4,900평) 매가 3.3㎡당 20만원 (공장, 창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교과교환가능 062-267-2006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트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영천 신촌점, 대인동 소정사건-내선)